

- 이재명의 ‘합시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48 -

“국군장병의 저렴한 통신망 사용료 보장!”

‘병사 반값통신료’ 공약 발표

- 2019년 도입된 국군장병 휴대전화 사용, 자기개발과 여가 활동에 큰 도움
- 평균 사용 3~4시간 안팎임에도 비싼 이용요금… 전체 병사 기준 월급 10%를 통신비로 지출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요금할인 50%로 상향, 감면 비용 절반 정부 부담 방안 검토 등으로 군사기 진작 및 병사 자기개발 지원 방안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48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병사 반값통신료” 공약을 발표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국군장병의 통신료 부담을 낮추고 저렴한 비용으로 통신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자기개발 등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통신사들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군인요금제(월 100GB 기본데이터 제공, LTE)는 장병들의 하루 평균 휴대전화 이용 시간이 3~4시간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통신사가 지난해 출시한 ‘언택트 요금제’ 보다 비싸다. 언택트 요금제는 통신사가 지난해 내놓은 요금제로, 소비자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저가형 요금제이다.

군 장병의 통신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일반요금 대비 20% 할인을 도입했으나, 국군장병의 요금부담을 충분히 완화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다.

이재명 후보는 “2019년 도입된 국군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은 병영 생활의 긴장을 풀고 외부와의 단절을 막아주어 병사나 군인 가족 모두가 만족하는 정책” 이라며, “특히 코로나로 면회 등이 더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자기개발과 여가 활동을 이어가도록 큰 도움을 주고 있다” 고 밝혔다.

다만 “장병들의 평균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3~4시간인데 반해 이용요금이 비싼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가 인용한 국방부 조사에 따르면, 군인 장병 10명 중 7명이 매월 5만원 이상의 통신 요금을 지출하고 있다. 병사월급이 약 67만 원 정도인데, 그중 약 10%가 통신비로 지출되고 있는 셈이다.

이 후보는 “병사 통신료를 반값으로 낮추겠다” 며 전기통신사업법 요금감면 규정 개정을 통해 50% 요금할인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기존 20% 요금할인을 50%까지 대폭 상향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100G 요금제 기준으로 월 34,500원의 요금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전 국민 대상의 선택약정할인까지 추가한다면 월 요금 17,250원 수준까지 낮출 수 있다.

또, 이와 같은 요금할인 정책의 안정적 실행을 위해 감면 비용의 절반을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공용 와이파이를 쓸 수 없는 군 특성상 장병들은 저렴한 통신망 사용이 중요하다” 며, “휴대전화 이용요금을 낮춰 사기 진작, 자기개발에 활용하도록 제대로 지원하겠다” 고 강조했다.

민주당 선대위는 장병들의 복지, 병영 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계속 발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사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병사 눈높이에 맞춘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끝)

※문의 : 정책본부 02-2630-0004

□ 설명자료 <재정추계>

- 현재 요금할인 20%→ 50%로 인상하고 민간과 정부 5:5로 부담할 경우,
 - 최소 연간 정부재정 288억원~최대 394억원 소요됨.
 - ※ 병사요금할인 50%로 확대하고 선택약정할인 25% 받을 경우 병사요금은 실질적으로 75% 할인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참고> 100G 요금제 기준

구분	통신사 요금 (SKT, KT기준)	병사요금할인 50%	병사요금할인 50%+ 선택약정할인 25%
일반 5G/LTE 100G 요금제	약 69,000원	약 34,500원	약 17,250원

- 19년도 군인요금제 이용자는 약 24만명으로 추산(과기정통부 자료)
 - 국방부 21년 정원 기준 전체 병사 수 32.9만명
 - * 작년 하반기 도입된 20% 요금할인은 통계 없음
- 정부가 절반을 보조하는 조건으로, 민간이 25%(현재 20%에서 5% 상향), 정부가 25%, 도합 50% 할인 가정 시
 - 현재 ARPU(1인당 매출)가 약 32천원, 군인들 연령상 젊은 사람들이라 보니, 1인당 40천원으로 조금 높게 잡고,
 - 이 중 50%인 20천원을, 정부와 통신사가 각각 10천원씩 지원하는 구조를 가정하면,
 - (최소 24만 가입자 기준)매월 10천원 X 12개월 X 24만명 = 연간 288억원
 - (최대 32.9만 병사수 기준) 매월 10천원 X 12개월 X 32.9만명 = 연간 394억원

<참고> 군인(현역병사) 요금제 현황

□ (LTE) 군인요금제 현황(' 19.3월~)

SKT		KT		LGU+	
월정액	데이터	월정액	데이터	월정액	데이터
33,000원	6GB +1Mbps	33,000원	日 2GB +3Mbps	33,000원	日 2GB +3Mbps
55,000원	100GB +5Mbps	55,000원	100GB +5Mbps	55,000원	日 5GB +5Mbps
-		77,000원	완전 무제한	-	

* SKT는 군인요금제 가입자에게 평일 저녁 및 주말·공휴일에 데이터 추가 제공(日 2GB+3Mbps)

□ (LTE·5G) 현역병사 대상 요금할인(' 21.10월~)

통신사	내용	비고	시행일
SKT	군인요금제 제외한 모든 LTE·5G 월정액 요금제 20% 할인 적용	- 선택 약정 할인 중복 가능 - 4만원 이상 요금제 이용 시 데이터 추가제공	'21.10.1
KT	군인요금제, 청소년요금제 제외한 모든 LTE·5G 월정액 요금제 20% 할인 적용	- 선택 약정 할인 중복 가능	'21.11.3
LGU+	LTE 요금제 10종, 5G 요금제 14종에 대해 월정액 20% 할인 적용	- 선택 약정 할인 중복 가능 - LTE 요금제 3종, 5G 요금제 3종에 대해서는 데이터 추가 제공	'21.11.1

□ Q&A 자료

Q. 군인 요금할인 민간에서 20% 하고 있는데, 50%까지 상향할 필요가 있습니까?

- 병사 휴대전화 사용 정책은 병사들의 만족도가 높고, 코로나19로 인해 외부와 단절된 상황에서도 자기개발, 여가활동 등을 가능하게 하는 등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한 제도입니다.
- 그러나 병사가 월급으로 통신료를 부담한다고 할 때, 월급의 10%를 통신료로 부담하는 것은 과도합니다.
- 특히 일부에서는 요금부담으로 인해 병사들 간에 요금제 ‘빈부격차’가 생겨 병영에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 특히 군용망은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공공와이파이 등이 설치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 일반 국민은 공공와이파이 등 데이터 부족 등에 대체 수단이 있지만 병사들은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국방을 위해 헌신하는 병사들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휴대전화 요금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Q. 결과적으로 군대 휴대폰 사용 정책 통신사만 배불리는 정책이 아닌가요?

- 군 휴대전화 사용 허용정책 시행으로, 통신회사는 약 30만이 넘는 병사 가입자를 확보하는 혜택을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통신사도 이에 합당한 요금할인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5:5로 할인요금을 부담할 경우, 통신사는 현재 20% 할인율에서 25%로 할인율을 상향하게 됩니다. 여기에 기존 선택약정할인 25%까지 포함하게 되면 통신사는 약 50%의 할인을 부담하게 됩니다.
- 더불어 군인 가입자가 많은 산간벽지 등에 투자 확대를 추진해 통신사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정부가 일부 보조를 하면 정부재정의 부담은 어느 정도인지요?

- 2019년 병사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된 당시 통신사가 출시한 ‘군인요금제’ 가입자 수는 약 24만명입니다. 본 휴대전화 가입자 기준으로 월평균 병사들이 4만원 요금을 쓴다고 가정하고 재정을 추계해보면 연간 288억원이 소요되며,
 - 전체 병사수인 32만9천명을 기준으로 추계해보면 연간 392억원이 소요됩니다.

- 정부 재정여력으로 충분히 부담이 가능하다고 봅니다.